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의상이 원교일승의 철학을 주장한 까닭은?

화엄에 관음·정토 융섭...서민과 만나다

1. 실천적 화엄의 전교

『삼국유사』의 「의해」의 '의상전교'라는 조목 이름처럼 의상(625~702)은 화엄원교의 구법과 전범으로 평생을 보냈다. 비록 그의 구법은 지엄 화엄에 원류를 대고 있지만 신라 귀국 이후 의상은 원교의 전교를 통해 해동화엄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리하여 그의 화엄사상은 신라 중대 이후 한국불교사상의 줄기를 형성했다. 의상 화엄의 특징은 하나인 근본을 강조하여 그 속에 연기된 모든 법상(法相)이 융섭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법성 원용의 본제(本際)에 돌아가는 것이 구래부동불이므로 구래불의 세계나 해인삼매가 곧 여래성의 현현인 성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체(理體)와 사상(事相)은 상즉상입하는 불이의 관계이므로 원용무애한 우주관이 일승법계이므로 의상의 사상은 성기관에 기 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의상은 융화적인 중도관의 전개를 통해 중도실제상을 건립하고 있다. 중도실제는 성기관을 특성으로 구축되며 구래부동의 설정으로 이어진다. 그는 원리적인 하나를 중시하여 그것의 앵글로서 전체를 미루어 파악하려 하였다. 의상의 『법계도』 중의 '일중일체다중일' (一切多中一切)의 중문(中門)과 '일즉일체다즉일' (一切多即一切)의 즉문(即門)에 대한 균여 등 고려 승려들의 주석에 의하면 "하나 속에 일체가 융섭되며 융섭된 일체의 하나 하나에도

2. 횡진법계관

화엄사상의 원리는 법계의 연기(緣起)와 여래의 성기(性起)의 구도로 해명된다. 여기서 연기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를 해명하는 원리이다.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사물은 모두 비실체성(公성)의 덩어리일 뿐이다. 그런데 이 공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물은 연기에 의해 '둘'이 되고, 다시 연기에 의해 '셋'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연기는 사물(事)과 사물(事)의 관계에 대한 원리이다. 반면 성기는 연기의 구극, 즉 연기가 이루어진 일승법계의 극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기(起)는 대해(大解)와 대행(大行)의 분별을 떠난 보리심 안에 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연기성으로 말미암아 '기'라고 하지만 '기'는 곧 '불기(不起)이며, 불기는 곧 성기(性起)이다." 때문에 연기는 '연'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지만, 성기는 연을 떠나서도 줄어들거나 무너지지(損壞) 않기 때문에 성기가 더 상위 개념이다.

이것은 유희세계의 원리인 연기, 즉 삼승의 입장과 무위세계의 원리인 성기, 즉 일승의 입장에서 변별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을 가지고 연기와 성기를 바라보면 성기는 곧 연기의 구극, 즉 법계연기의 극치임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성기는 연 없이도 성립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는 연이 모이거나 흩어짐에 의존하는 삼승연기에 대해 이것을 조월하는 일승연기의 입장이 성기인 것이다. 의상의 스승인 지엄은 성기의 성을 순리(純理)의 행성(行性), 즉 진실 그 자체의 실천의 본성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보현행이 성기에 속함을 「보현행원품」 주석에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여래출현을 상징하는 성기의 모습을 연기의 구극적 입장이라 파악하기에 가능한 표현인 것이다.

의상은 십지(十地)의 비유를 통해 횡진법계관을 밝히고 있다. 그는 '십지 중의 십지'를 '일왕십지(一往十地)의 비유' 또는 '십층 십탐(十層十探)의 비유'를 '십층 일탐(十層一探)의 비유'로 바꾸어 설명하기도 한다. "만일 십지문에 의거하여 초지에서 십지로 감을 세워서 말하면, 첫 환희지를 부를 때 나머지 구지가 모두 덩달아 '나도 환희지', '나도 환희지'라 일컬으면 이것은 의상의 주장이다. 첫 환희지를 부를 때 나머지 구지가 '나는 이구지', '나는 발광지' 내지 '나는 법운지'라고 하면 이것은 법장(法藏, 643~712)의 주장이다. 만일 십층 일탐을 세워 달리 비유하면 첫째 층을 부를 때 뒤의 아홉 층이 일꺼리를 '나도 첫째 층', '나도 첫째 층'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상의 주장이다. 첫째 층을 부르는데 뒤의 아홉 층이 말하기를 '나는 둘째 층' 내지 '나는 열째 층'이라고 하는 것은 법장의 주장이다."

의상의 횡진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지'이며 나머지 구지 역시 초지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초지를 환희지라고 부를 때 나머지 구지들도 각기 덩달아 환희지라고 일컬고 있음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횡진법계를 설명하는 십층 십탐의 비유는 결국 수진법계를 설명하는 십층 일탐의 비유로도 전이된다. 왜냐하면 십층 십탐의 비유는 첫 탐의 각 층에 나머지 아홉 탐의 각층이 속하게 되므로 곧 십층 일탐의 비유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진법계는 시방세계의 무진연기와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십층 십탐'의 각 층이 첫째 탐의 첫째 층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상이 『법성계』에서 '일미진중합시방' (一微塵中含十方)이라 한 것은 한 티끌 안에는 시방세계가 들어있고, 하나 안에는 전체가 들어있다는 인표이다. 이것은 횡진법계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상은 초지인 환희지를 통해서 십지를 말하듯 일즉다의 전개(확산)를 중심으로 다즉일의 통합(융섭)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 중도실제상

불교는 보이는 세계[相]인 색(色)과 보이지 않는 세계[性]인 공

(空)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화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성(性)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인 상(相)의 세계에 대해 조화와 균형을 논리를 보여준다. 즉 보이는 세계[有]와 보이지 않는 세계[無]를 동시에 보여주기에 때문에 이것을 공관(空觀) 혹은 정관(正觀) 혹은 중관(中觀)이라고 한다. 의상 역시 공관 또는 중관 혹은 정관의 관점 위에서 제법을 상(相)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으로 풀이해 도리(道理)로 파악하려 하였다. 해서 연기된 제법은 연이 다하면 사라지므로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또 그것이 만들어진 인연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융화되어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연기된 제법인 색(色)으로서의 상(相) 보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진 연(緣)으로서의 성(性)에 집중하였다.

의상은 "연기된 제법의 본성[法性]은 원용하여 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제법의 본성인 법성은 유와 무, 일과 일체 등의 두 가지 대대(待對)를 융섭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의상은 법성은 진공(眞空)이며 진공은 ' 텅 빈 것'도 아니고 '꼭 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 실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는 성(性)과 상(相)의 색의 두 변견을 융섭했기에 중도이며, 지극히 미묘하므로 중도이며, 두 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융섭은 인(人)과 법(法)과 교(教)를 포함해서 제법의 모습이

‘공과 가’ ‘성과 상’ 차별없는 중도로 봐

해인으로 삼라만상의 근원 자리 설명

구래부동불 ‘해인삼매’... 잠든 부처에 비유

모두 같아져 하나로 합쳐지므로 중도인 것이다. 그런데 중도는 상과 상으로 대비되는 이변(二邊)의 융합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모든 존재[諸法] 즉 제변(諸邊)에 모두 시설되어 있다. 때문에 법계 연기의 현상이 원용하고 무애하다는 인식은 중도사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의상은 공과 가, 즉 성과 상을 차별이 없이 중도적 입장으로 보고 있다. 그는 연기론적 입장이 아니라 성기론적 입장을 취하며, 가관적 입장이 아니라 공관적 입장을 취한다. 이것은 공과 가, 즉 성과 상을 같이 보면서 공 안에 가를 담으려 하고, 성 안에 상을 담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인 '하나' 속에 '전체'를 담으려는 의상의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법계연기의 무진(無盡)한 제법을 중도 논리로 이해하였고 연기된 제법의 통합을 위해 중도를 시설하였다. 의상은 중도의 설정을 통해 법계연기를 설명하고 법계도 작성을 통해 근본인(印)을 세웠다. 그는 일체만상의 본성인 진여본각(眞如本覺)을 해인(海印)으로 설명하고, 해인으로부터 삼라만상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화엄경』에서 설한 법계의 연기현상이 모두 해인정(海印定)에서 일어났다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연기된 제법의 본성에는 고유한 성품이 없으며[無性] 그 때문에 그것에 의한 법성은 머무름도 없다[無住]. 그러므로 비록 무한한 연성(緣成)을 갖지만 무진한 연기법 자체가 고유한 성품이 없으므로 참다운 성품이 된다. 그리고 제법 속에 상대하여 존재하는 본성과 가상은 결국 무성하고 무주하므로 서로 분별이 없고 결집이 없어져 혼연된 일체를 이루게 된다. 제법은 무한한 연성을 가지면서 변모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연성은 바로 진성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제법의 본성은 공하기 때문에 무성으로 나타난다.



의상 스님의 진영. 의상은 법계도 작성으로 근본인을 세웠다.

다. 또한 제법의 공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연기법이 분별이 없어져 실성(實性)을 이룬다. 그러므로 의상은 '본래 고요한 것'이자 본성인 '공'을 '구래(舊來)로 설정하고 제법의 본성인 공을 '부동'(不動)으로 파악하여 '구래부동불'을 중도의 상(床)에 실제(實際)가 앉아 있는 것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구래부동불(舊來不動佛)을 자리에 앉아 잠든 자기불로 비유하였다.

참고문헌

- 의상, 『화엄일승법계도』(『한불전』 제1책), 의상, 『백화도량발원문』(『한불전』 제1책), 의상, 『일승발원문』(『한불전』 제1책), 전해주, 『의상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89), 김두진,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민음사, 1995), 고영섭, 『한국불학사: 신라시대편』(연기사, 2005).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탄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발자국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주는 멀고 공덕이 높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삼색, 크로미, 맨드, 이부사계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 양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열된 모주의 구멍에 크로미를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꿰냅니다.
- 5 끝부분까지 꿰냈으면 3회 정도 한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강용 염주를 통과시킨 두 줄에 맨드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맨드트와 마강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한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게두고 자른 후 리미터를 살짝 지지해서 손으로 가볍게 늘려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심원산인특허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안바들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